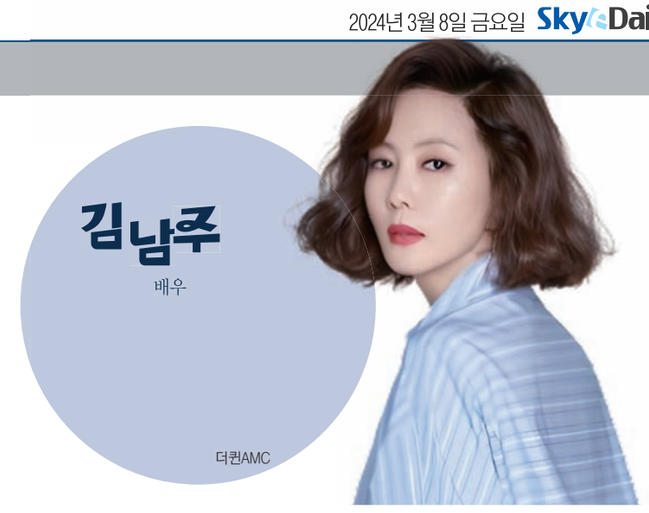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김남주 '원더풀 월드' 절절한 모성애 연기 압권

〈MBC 드라마〉



1971년 경기도 평택에서 태어난 김남주는 비정규직으로 경기도 송탄시청에서 민원인에게 토지대장을 떼어주는 일을 하다가 1992년 미스코리아 대회에 출전해 경기진에 당선되면서 사표를 쓰고 연예계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수원여자전문대 무용과를 전공한 뒤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단역배우였던 아버지를 따라 배우를 꿈꾸며 1994년 SBS 공채 탤런트 4기에 합격해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도시적 이미지로 연기를 이어간 그는 단역을 전전하다 1996년 SBS 드라마 '도시남녀'에서 털털한 매력의 라디오 구성작가 나민주 역으로 출연하면서 스타로 떠올랐다. 차도녀(차가운 도시 여자) 캐릭터에 딱 들어맞는 이 작품으로 데뷔 3년 만에 SBS 연기대상 우수연기상을 수상했다.

1997년 SBS 드라마 '모델'에서는 소심한

의상학과 학생 송경린 역으로 출연해 모델이 멋진 직업임을 증명하는 주역을 맡아 또 다른 매력을 선보였다. '모델'은 패션 모델 업계에서 일하는 젊은 남녀의 사랑을 그린 드라마로 장동건·염정아 등 화려한 출연진이 돋보였다.

연이은 드라마의 성공으로 인기에 날개를 단 김남주는 '내 마음을 뺏어봐' '아주 특별한 여행' '승부사' 등 SBS의 여러 드라마에 출연해 대중의 관심을 꾸준히 받았다.

1998년 MBC로 옮겨 드라마 '왕초'에서 김춘삼 역을 연기한 당대 최고의 인기 배우 차인표와 호흡을 맞췄다. 왕초를 짝사랑하는 민재 역으로 35%의 높은 시청률에 일조했다.

2001년에는 MBC 드라마 '그 여자네 집' 출연을 마지막으로 공백기를 가졌다. 연기 활동은 중단했지만 광고에는 간간이 출연했다. 그러다 2005년 배우 김승우와 결혼해 화제가 됐다. 김승우와 김남주가 처음 만난 시기는 1997년이다. 영화상 시상식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당시 사적인 만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본격적으로 만난 때는 2004년이다. 김승우와 함께 드라마 촬영 중이던 유호정이 외로움을 느끼던 김남주를 김승우가 있던 술자리에 부르면서 인연이 시작됐다. 동석한 김남주는 김승우의 남자다움에 반해 먼저 호감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방영한 화제의 MBC 드라마 '불새'의 대본을 받은 김승우가 김남주에게 동반 출연을 김남주에게 제의하면서 더욱 가까워졌다. 여자 주인공이 캐스팅되기 전 김승우는 김남주의 집을 찾아가 같이 대본을 읽으며 손발을 맞췄다. 그러나 아쉽게도 김남주가 출연을 고사하면서 동반 출연은 불발됐다. 이를 계기로 잦은 전화 통화를 하게 됐고 결국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 1남 1녀의 엄마가 된 김남주는 2009년 MBC 드라마 '내조의 여왕'으로 8년 만에 안방극장에 화려하게 컴백했다. '내조의 여왕'은 여고생의 선망 대상이었던 천지애(김남주 분)가 신데렐라의 꿈을 안고 장래가 보장된 서울대 의대생이었던 온달수(오지호 분)와 서둘러 결혼했으나 온달수의 무능력함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되는 천지애의 인생 이야기다. 오랜만에 돌아왔음에도 여전한 연기력으로 그해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거머쥐었다.

2010년 방영한 후속작 MBC 드라마 '역전의 여왕'으로 MBC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하면서 전성기를 이어갔다. 이후 박지은 작가와 다시 한번 손잡고 2012년 KBS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도 출연해 연이은 히트작을 냈다.

이처럼 김남주는 다양한 작품에서 승승장구하면서 광고계에서 고액의 개런티를 받는 블루칩으로 불렸다. 1993년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광고를 기점으로 LG패션·현대자동차·한화건설·대우건설 등 60여 편의 광고를 찍는 'CF의 여왕'으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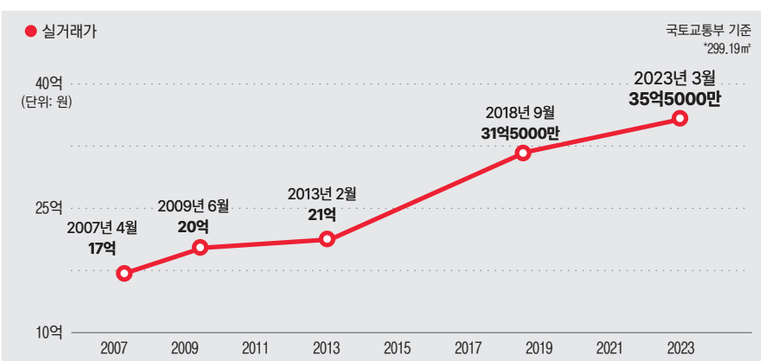
한편 김남주가 JTBC 드라마 '미스티' 출연 후 6년 만에 MBC 새 금토드라마 '원더풀 월드'로 돌아왔다. 1일 첫 방송된 '원더풀 월드'는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직접 처단한 은수현(김남주 분)이 그날에 얽힌 미스터리한 비밀을 파헤쳐 가는 휴먼 미스터리 드라마다. '원더풀 월드'는 매주 금·토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된다.

한편 절절한 모성애 연기가 돋보이는 김남주의 부동산 재력이 관심이다. 그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단독주택 한 채를 2003년 6월 매입해 소유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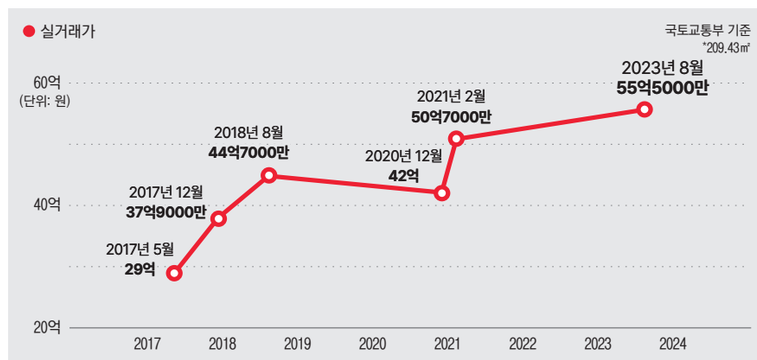
현대주택단지 내에 있는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대지면적 517.7㎡(약 156.60평)·연면적 381.29㎡(약 115.34평) 규모다.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소유 주택의 시세는 8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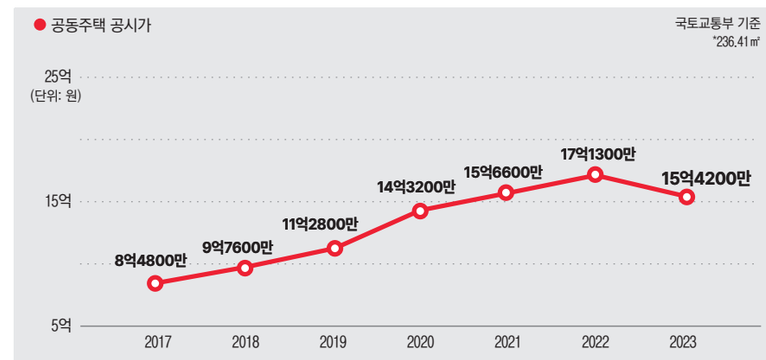
신동아듀크빌



삼성동현대아이파크



형우럭스빌



신세용 현)국제아동돕기연합 이사장

신세용 국제아동돕기연합 이사장은 어린 시절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 철학을 공부하며 '사람은 왜 사는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다. 결국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결심하고 2004년 국제아동돕기연합을 설립해 후원자의 협조와 자체 수익활동 등을 통해 국내 및 탄자니아의 불우아동 돕기를 시작했다.

앞서 영국 옥스퍼드대 출신의 금융전문가로 일했던 신 이사장은 500만 원을 3억 원으로 불리며 탁월한 금융 감각을 자랑한 바 있다. 꾸준히 길을 갔다면 업계에서 큰 업적을 이룰 수 있었지만 사회봉사에 마음이 이끌려 금융계를 떠났다.

그는 "무슨 일이든 지금 당장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아이들을 돕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지금 도와야지 나중에 하겠다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2012년 국제아동돕기연합은 '삼성사회공헌상'을 받았고 상금을 탄자니아로 보냈다.

장병화 전)한국은행 부총재

장병화 전 한국은행 부총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7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조사역·비서역을 거쳐 비서실장·금융시장국장·기획정책국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한 통화정책 분야 전문가다. 정책기획국장을 지내면서 통화정책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금융위기를 대응해 금리 인하·총액한도대출 한도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을 입안해 금융 안정에 기여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맡아 통화정책의 정상화, 금융경제통계의 정확성 및 신속성 등을 강화했다는 평을 받았다. 퇴직 후 서울외국환중개로 자리를 옮겨 대표이사 사장을 맡았다. 그러다 2014년 6월 한국은행 부총재로 임명되면서 복귀했다. 퇴임식에서 장 전 부총재는 "지난 3년간 부총재로 지낸 것은 큰 영광이자 축복이었다"며 "몸은 고달팠지만 총재의 신뢰로 마음고생 없이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했다"며 자신을 '복 받은 부총재'로 칭했다.

김성훈 전)상지대 총장

김성훈 전 상지대 총장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태어나 완도·진도에서 유아기와 유년기를 보냈다. 1944년 일가족이 귀향하면서 줄곧 목포에서 성장했다. 서울대 졸업 후 미국 하와이대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고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와 중앙대 산업대학 산업경제학과 교수·학장·부총장을 거쳐 대학원 원장을 지냈다. 이어 농림부 장관·경실련 공동대표·한국산지보전협회장·강원지역대학총장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5년 3월 상지대 총장으로 취임해 투명경영을 실천하면서 대학을 학생이 주인이 되는 열린 교육의 터전으로 발돋움시켰다. 또 '학생제일주의'라는 원칙 아래 교수 한 사람이 10명의 학생을 책임지는 멘토링 시스템과 다양한 장학금 제도 등을 마련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는 칼럼집 '더 먹고 싶을 때 그만두거라'를 썼다. 농업과 환경의 문제뿐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 중심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담았다.